# 평 양 성 성 석 고
## (平壤城城石考)
## (이대소장품(梨大所藏品)을 중심(中心)하여)

崔 淳 姬
문화재전문위원

서문(序文)

이 성석(城石)은 고구려(高句麗) 평양성(平壤城) 구축 당시(當時)의 각자(刻字)된 성석(城石)의 하나로 원래 오경석씨(吳慶錫氏)가 입수(入手) 보관(保管)하였던 것을 아들인 오세창씨(吳世昌氏)가 계승(繼承) 소장(所藏)했으며 다시 근년(近年)에 이대박물관(梨大博物館)에서 인수(引手)한 것이다.
크기는 세로 18㎝, 가로 36㎝, 두께 약(約) 9㎝인 비교적(比較的) 편편한 자연(自然) 석면(石面)에 가공(加工)없이 그 위에 그대로 각자(刻字)한 것이다.
평양성(平壤城)은 고구려시(高句麗時)에 구축한 도성(都城)으로 성(城)은 외성(外城) 중성(中城) 내성(內城) 북성(北城) 등 4성(城)으로 구분(區分)되어 있다.
성(城)의 길이는 약(約) 15㎞나 되며 성곽(城郭) 동남(東南)은 대동강(大洞江)을 끼고 서(西)편은 보통강(普通江)이 흘러 주위가 강(江)으로 둘러 쌓여 있으며 현재(現在) 평양시가(平壤市街)의 중심부(中心部)를 이루고 있다.
내성벽(內城壁)은 성석(城石)으로 축성되었으며 외성벽(外城壁)은 주(主)로 토성(土城)으로 쌓여져 있고 성내부(城內部)에는 고구려시(高句麗時)의 도시구획(都市區劃)의 유지(遺趾)가 남아 있다.[1)]

이 성곽(城郭)에서는 오늘날까지 각자(刻字)된 성석(城石)이 수종(數種) 발견(發見)되고 있으며 현재(現在) 이대박물관(梨大博物館)에 소장(所藏)되고 있는 것은 이중에서 두 번째 발견된 것이다.
본고(本稿)에서는 주(主)로 종래(從來) 이 성석(城石)에 쓰여진 명문판독(銘文判讀)이 구구(區區)할 뿐 아니라, 구축 연대(年代)에 있어서도 이견(異見)이 있음을 발견하고 차제(此際)에 이에 대(對)한 재정리(再整理)를 시도(試圖)하였다.

발견(發見)된 각자성석(刻字城石)의 개요(槪要)

현재(現在)까지 밝혀진 성석(城石)은 본(本) 성석(城石)을 포함하여 총(總) 4종(種)으로 알려져 있다.
발견된 차례에 따라 각자(刻字)된 명문(銘文)의 내용(內容)을 살펴본다면,
(1) 己丑年五月廿八日始役西向十一里小兄相夫若모利造作[2)]

기축년오월입팔일시역서향십일리소형상부약모이조작

(2) 己丑年三月卄日自此下向東十二里物省小兄俳□百頭國節矣[3)]

기축년삼월입일자차하향동십이리물성소형배□백두국절의

(3) 丙戌十二月日漢城下後四小兄文達節自此西北行涉之[4)]

병술십이월일한성하후사소형문달절자차서북행섭지

(4) 卦婁盖切小兄加群自此東廻上□里四尺治[5)]

괘루개절소형가군자차동회상□리사척치

상기(上記)한 성석(城石) 내용(內容)에서 (1)과 (2)는 유희해(劉喜海)가 집록(輯錄)하고 유승간(劉承幹)이 교정(校訂)한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에서 발취한 것이며 (3)은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간행(刊行)한 금석총람(金石總攬) (4)는 고고민속(考古民俗)에 게재(揭載)한 것을 인용(引用)한 것이다.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1785~1856)는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에서 (1) (2) 명문(銘文) 내용말(內容末)에 다시 이들 각자석(刻字石)에 대(對)해 추가(追加) 설명(說明)하기를,

「(此刻 出於丙戌 今六十四年 不可復覓 又得一石於外城鳥灘下 與此小異 此云 西向 彼向東 차각 출어병술 금육십사년 불가복멱 우득일석어외성조탄하 여차소이 차운 서향 피향동
也 小兄二字 知爲句驪古跡無疑 補書於此 此己丑當爲長壽時 後一千三百八十一年 金正喜書[6)]

야 소형이자 지위구려고적무의 보서어차 차기축당위장수시 후일천삼백팔십일년 김정희서」

이글의 내용(內容)으로 본다면 제일 먼저 발견된 성석(城石)은 1766年(영조(英祖) 42)인 병술년(丙戌年)에 발견된 것이며 「우득일석(又得一石)」이란 본 성석(城石)을 지적(指摘)한 것으로 외성(外城) 조탄하(鳥灘下)에서 발견된 것으로 설명(說明)하고 있다. 이 글에서 발견된 연대(年代)가 확실(確實)치 않으나 글의 내용(內容)에서 추정(推定)한다면 처음 성석(城石)이 발견된 1760年인 병술(丙戌)에서 이 글을 첨부(添附)한 「후천삼백팔십일년(後千三百八十一年)」에 해당(該當)되는 1839(헌종(憲宗) 5) 사이의 어느 연대(年代)로 추정(推定)할 수 있다. 일설(一說)에 의(依)하면 이 성석(城石)은 1829年(순조(純祖) 29) 기축(己丑)에 수해(水害)로 성벽(城壁)이 궤열(潰裂)되었을 때 발견된 것이라 한다.[7)]

(圖版 1) 平壤鏡齊里發見 城石

(圖版 1) 평양경제리발견 성석(平壤鏡齊里發見 城石)

(국립도서관소장탁본(國立圖書館所藏拓本))

尺 口 此 兄 卦　　척 구 차 형 괘
　　婁　　누
治 里 東 加 盖　　치 리 동 가 개
　廻 群 切　　회 군 절
四　　사
　　小　　소
　上 自　　상 자

(圖版 1) 平壤鏡齊里發見 城石

(圖版 2) 1964年 내성(內城) 서남단(西南端)에서 발견(發見)된 성석(城石)

(3)의 성석(城石)은 1913年 평안남도(平安南道) 평양부(平壤府) 경제리(鏡齊里) 대동강반(大洞江畔)의 성벽(城壁)에서 발견되었으며 (4)의 성석(城石)은 1964年 내성(內城) 서남단(西南端) 유지(遺趾)에서 최희림씨(氏)에 의(依)해 발견된 것이다.[8)]

이들 제성석(諸城石)은 「소형(小兄)」이란 고구려(高句麗) 관직명(官職名)이 각자(刻字)되어 있어 고구려(高句麗) 성석(城石)이 분명(分明)함을 입증(立證)해 주고 있다.
이중 (4)의 성석(城石)을 제외하고 축성연대(築城年代)를 표시(表示)한 간지(干支)가 새겨져 있다.
이 성석(城石)의 축성연대(築城年代)에 대(對)해서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는 장수왕(長壽王) 37年(449)인 기축년(己丑年)으로 단정(斷定)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最近)에 발표된 제논문(諸論文)에서는 하나같이 이보다 두 갑자후(甲子後)인 평원왕(平原王) 11年(569)인 기축년(己丑年)을 구축연대(構築年代)로 추정(推定)하고 있다.[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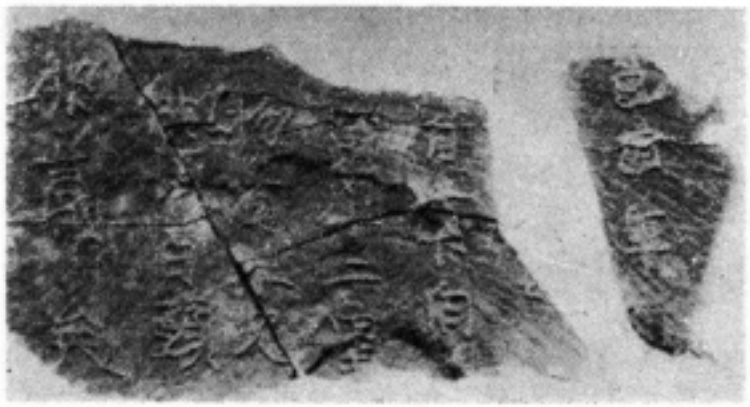
발견(發見)된 성석중(城石中) (1)과 (2)의 성석(城石)은 구축연대(構築年代)를 나타낸 간지(干支)가 같을 뿐 아니라 내용(內容)의 기술방법(記述方法)이 비슷하다하여 동일년대(同一年代)의 구축(構築)으로 해석(解釋)하고 있다.[10)]

즉 (1)은
「기축년(己丑年) 오월이십팔일(五月二十八日)에 처음으로 역사(役事)를 시작했고 서쪽을 향(向)하여 11리(里)를 소형(小兄)인 상부약모리(相夫若모利)가 구축한다」
로 해석하고 있으며
(2)는
「기축년(己丑年) 오월이십일일(五月二十一日)[11)]
이곳으로부터 아래로 동쪽을 향(向)하여 12리(里) 구간을 물성소형 비□백두(物省小兄

俳□百頭)가 구축한다」
고 풀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두 성석(城石)을 기준(基準)으로 하여 하나는 5月 28日 서향(西向)으로 11리(里) 구간을 다른 하나는 5月 21日 동(東)쪽으로 12리(里) 구간을 같은 지점(地點)에서 출발(出發)하여 쌓은 것이라고 설명(說明)하고 있다.

본(本) 성석(城石)에 대(對)한 제론(諸論)

필자(筆者)는 최근(最近) 두 번째 발견된 성석(城石)의 지정조사(指定調査)를 담당하게 되어 실물(實物)을 직접 보게 될 기회(期會)를 갖게 되었다.
이 성석(城石)은 종래(從來) 여러 문헌(文獻)에 내용(內容)이 기재(記載)되어 왔으나 문자(文字)의 판독(判讀)이 일정(一定)하지 않고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더구나 근간(近間)에 평양성(平壤城) 관계(關係) 연구(硏究)가 활발(活潑)히 진행(進行)되고 있음을 볼 때 차제(此際)에 재정리(再整理)할 필요(必要)가 있음을 절감(切感)하게 되었다.



(圖版 3) 梨大博物館所藏城石

(圖版 3) 이대박물관소장성석(梨大博物館所藏城石)

현재(現在) 이 성석(城石)에 대(對)한 인용문(引用文)을 본다면 우선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과 금석총람(金石總攬)을 들 수가 있다.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은 연정(燕庭)이 집록(輯錄)한 원록(原錄)과 그 후 유승간(劉承幹)이 다시 보충(補充) 집록(輯錄)한 2종(種)으로 구분(區分)할 수가 있다. 이들 문헌(文獻)에서 수록(收錄)된 것을 선후(先後) 순서(順序)에 따라 밝힌다면,
유연정(劉燕庭)의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에서는

高句麗 故城石刻(고구려 고성석각)
石高七寸, 光一尺一寸四分(석고칠촌, 광일척일촌사분)

字徑寸七行行三四字不等(자경촌칠행행삼사자부등)
己丑年五月廿一日自此下向東十二里物省(기축년오월입일일자차하향동십이리물성)
小兄俳□百頭□節矣(소형배□백두□절의)

라 수록(收錄)되어 있으며
유승간(劉承幹)의 보집(補輯)한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에서는

高句麗故城石刻(고구려고성석각)
石高七寸光一尺一寸四分(석고칠촌광일척일촌사분)
七行行三四五字不等正書(칠행행삼사오자부등정서)
己丑年(기축년)
三月廿一日(삼월입일일)
自此下向(자차하향)
동東十二里(십이리)
物省小兄(물성소형)
俳□百頭(배□백두)
□節矣(□절의)

라 하여 성석(城石)에 쓰여진 배자(排字)에 따라 기재(記載)하고 있다.
다시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발행(發行)한 금석총람(金石總攬)에는

平壤高句麗城壁石刻(평양고구려성벽석각)
所在 京城住吳世昌氏藏(소재 경성주오세창씨장)
年時 推定高句麗平原王十一年己丑(년시 추정고구려평원왕십일년기축)
(皇紀一千二百二十九年(황기일천이백이십구년))
己丑年(기축년)
□月廿一日(□월입일일)
自此下向(자차하향)
東十二里(동십이리)
物구小兄(물구소형)
俳須百頭(배수백두)
□節矣(□절의)
(縱六寸橫一尺二寸厚三寸五分字徑 九分楷書小字ハ 吳世昌氏藏 舊拓ニ 依ル)(종육촌횡일척이촌후삼촌오분자경 구분해서소자도판ハ 오세창씨장구탁ニ 의ル)

위 3종(種)의 금석문(金石文)을 비교(比較) 대조(對照)해 볼 때 글자 총수(總數)는 해동금석원원집(海東金石苑原輯)이 28자(字) 기타(其他)는 27자(字)며 행자수(行字數)가 부등(不等)한 것이 있으며 글자의 판독(判讀) 또한 서로 달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본문(本文)의 예(例)를 볼지라도 유연정(劉燕庭)의 판독(判讀)에 대해 유승간(劉承幹)이 이견(異見)을 제기(提起)하고 있으니 보집(補輯)의 본(本) 금석문말(金石文末)에

첨부(添附)된 이견서(異見書)에 의(依)하면

「又前一刻 三月原作五月 今審石本 當是三字自此下 原錄作自此以下 今審石本 實無以字均爲更正....」[12)]

(「우전일각 삼월원작오월 금심석본 당시삼자자차하 원록작자차이하 금심석본 실무이자균위경정....」)

이라 하여 연정(燕庭)의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 원록(原錄)의 2행(行) 첫 자(字)인 「오(五)」를 「삼(三)」으로 3행(行)의 「자차이하(自此以下)」중에서 세 번째 글자 「이(以)」자(字)를 없애고 「자차하(自此下)」로 다시 수정(修正) 수록(收錄)하고 있다. 이러한 실례(實例)를 볼지라도 애초에 신중(愼重)한 검토(檢討)가 없이 각자(各自)의 주견(主見)에 따라 판단(判斷) 해득(解得)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유승간(劉承幹)의 경정(更正)에 이어 그후에 간행(刊行)된 금석총람(金石總攬)에서는 2행(行)의 첫 자는 판독(判讀)이 애매하다하여 기재(記載)하지 않고 공란(空欄)을 남겼으며 종래(從來) 5행(行)의 둘째자인 「성(省)」자(字)를 「구(苟)」자(字)로 다시 경정(更正)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외 이제껏 판독(判讀)되지 못했던 7행(行)의 둘째자를 「수(須)」로 추가(追加) 판독(判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以上) 3종(種)의 예문(例文)만 보더라도 본(本) 성석(城石)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번 시정(是正)이 거듭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갈성말치씨(葛城末治氏)의 조선금석고(朝鮮金石考)에 의(依)하면 본 성석(城石)이 2종(種) 있는 것으로 해석(解釋)하고 있다. 그의 설명(說明)에 따르면 즉 구탁본(舊拓本) 원석(原石)이 다 함께 경성오세창씨(京城住吳世昌氏)가 소장(所藏)하고 있으며 이외로 고구려고성(高句麗故城) 석각(石刻)이 있어 오세창씨(吳世昌氏)가 소장(所藏)하고 있는 것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나 다만 오씨소장(吳氏所藏)은 2행(行)의 월일(月日)이 궐일(闕佚)되고 5행(行)에서 「성(省)」자(字)가 「구(苟)」자(字)로 각자(刻字)된 차이(差異)만 있을뿐이라고 애매한 해석(解釋)을 하고 있다.[13)]

이러한 해석(解釋)은 단순히 유승간(劉承幹)의 해동금석원보집(海東金石苑補輯) 금석총람(金石總攬)에 기재(記載)된 문자(文字)의 차이(差異)만을 보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實際)로 금석총람(金石總攬)에서 오세창씨(吳世昌氏)가 소장품(所藏品)이 바로 고구려성벽석각(高句麗城壁石刻)임을 지적(指摘)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 석성(石城)에 2종(種)이 있을 수 없음을 자명(自明)한 사실로 씨(氏)의 착오(錯誤)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와 같이 본 성석(城石)의 명문판독(銘文判讀)은 애당초 신중(愼重)한 검토가 행해지지 않았을 뿐아니라 이에 대한 기본적(基本的)인 연구(硏究)조차 실시(實施)되지 못하고 최근(最近)에 발표되는 평양성관계(平壤城關係) 논문(論文)은 아예 이들 문헌(文獻)마저 상고하는 일없이 제멋대로 전사(傳寫) 인용(引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석(城石)의 현황(現況)

현재(現在) 이대박물관(梨大博物館)에 보관(保管)되어 있는 이 성석(城石)에 각자(刻字)된 총자(總字)는 27자(字)(궐일(闕佚)된 자(字) 포함) 총행(總行)은 7행(行)으로 첫 행(行)은 연대(年代)를 표시(表示)한 간지(干支)가 있고 다음 2행(行)은 깨어져 나가 없어지고 다만 끝자(字)인 「日」자(字)의 하단부(下端部)만 조금 남아 있을 뿐이다.
이 2행(行)은 전후(前後) 글씨의 배정(排定)으로 보아 「월일(月日)」이 각(刻)되어 있음이 분명(分明)한 것으로 현재(現在) 이 궐일(闕佚)된 부분(部分)을 황수영선생(黃壽永先生)께서 소장(所藏)하고 있으며 글자가 다른 행(行)에 비해 다소 적으며 자수(字數)가 5자(字)로 총(總) 27자(字)임이 판명(判明)되었다.

(圖版 4) 黃壽永先生所藏拓本

(圖版 4) 황수영선생소장탁본(黃壽永先生所藏拓本)

첫 행(行)은 3자(字), 2행(行) 5자(字), 그리고 3, 4, 5, 6행(行)은 각각(各各) 4자(字), 끝 7행(行)은 3자(字)로 되어 있다.
1행(行) 상하단(上下端) 길이는 16㎝, 2행(行)은 14㎝, 3행(行)은 14.2㎝, 4행(行)은 14.5㎝, 5행(行)은 17㎝, 6행(行)은 18㎝, 7행(行)은 19㎝로 되어 있어 저마다 길이가 다르고 우(右)쪽에서 좌(左)편으로 갈수록 점차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성석(城石)의 현재(現在) 상태(狀態)는 간지(干支)와 본문(本文)사이의 「월일(月日)」이 각(刻)된 부분(部分)이 유실(遺失)되기 때문에 크게 두 조각이 났으며 전체(全體) 아홉 조각으로 귀열(龜裂)되어 있는 것을 석고(石膏)로 고착시켜 놓고 있다.
우선 6행(行)과 7행(行) 중간(中間) 상단(上端)에서 4행(行)과 5행(行) 중간(中間) 하단(下端)에 이르기까지 종(縱)으로 갈라져 나갔으며 5행(行) 셋째 글자로부터 3행(行) 둘째자(字)인 「차(此)」바로 밑으로 횡(橫)으로 크게 갈라져 나갔음을 알 수가 있다.
이제 이 성석(城石)에서 문제(問題)되는 각자(刻字)에 대해 살펴본다면,
유연정(劉燕庭)은 이 3행(行)의 둘째자인 「차(此)」 다음에 「이(以)」자(字)를 두고 있다. 이 부분은 금이 간 부분이며 석면(石面)이 다른데 비(比)해 다소 굴곡이 있어 글

자로 오인(誤認)할 수도 있으나 전체(全體) 행(行)에서 가장 조밀하게 배자(排字)된 곳으로 「차(此)」다음의 「하(下)」자(字) 사이에 「이(以)」자(字)가 들어갈 여백(餘白)이 없음을 알 수가 있다. 해석상(解釋上) 편의(便宜)에서 집어 넣은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유승간(劉承幹)이 보집(補輯)할 때 이 부분(部分)에 「이(以)」자(字)가 없음을 확인(確認)하고 없앤 것은 실물(實物)을 보아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다음 2행(行)은 현재(現在) 궐일(闕佚)된 부분(部分)이긴 하나 모든 문헌(文獻)에 기록(記錄)이 되어 있다. 다만, 유연정(劉燕庭)이 「오월입일일(五月卄一日)」로 판독(判讀)한 것을 유승간(劉承幹)은 「삼월입일일(三月卄一日)」로 시정(是正)했으며 금석총람(金石總攬)에서는 처음 글자 란(欄)의 수자(數字)를 공란(空欄)으로 처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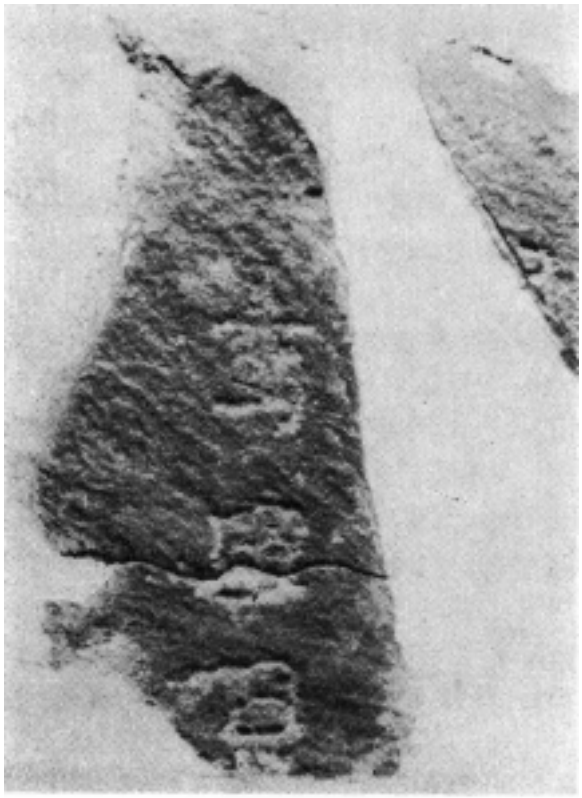
현재(現在) 남아 있는 구탁(舊拓)을 본다면 이 부분(部分)이 마멸되어 「삼(三)」과 「오(五)」를 식별(識別)하기 힘들며 탁인(拓印)한 것으로는 정확(正確)한 판독(判讀)이 힘들다.

5행(行)의 둘째 글자는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 원록(原錄) 보집(補輯) 하나같이 「성(省)」자(字)로 판독(判讀)되고 있으나 금석총람(金石總攬)에서는 「구(苟)」자(字)로 경정(更正)하고 있다. 현재(現在) 이 글자의 상부(上部)가 다소 마멸되어 정확(正確)한 글자 판독(判讀)이 어렵긴 하나 이 글의 하단부(下端部)를 자세히 본다면 분명(分明)히 「구(苟)」자(字)로 되어 있어 「성(省)」자(字)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윗부분이 정확한 판독이 힘들다 할지라도 전체(全體) 글자의 형태나 분위기로 보아 금석총람(金石總攬)에서 판독(判讀)한 「구(苟)」자(字)로 보아야 할 것이다.

6행(行)의 둘째 글자인 「수(須)」자(字)는 금석총람(金石總攬)에 와서 비로소 밝혀낸 것이다.

이 글자는 중간부분(中間部分)이 상하(上下)로 갈라져 나갔으나 전체(全體) 자형(字形)으로 본다면 「수(須)」로 보아 무방할 듯 하다.

다만 7행(行) 첫째 자(字)만은 현재(現在) 자체(字體)가 비교적(比較的) 온전히 보존(保存)되어 있는데도 이제껏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글자 해득(解得)이 현재(現在)로선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이에 대(對)한 글자 해득(解得)이 앞으로 시도(試圖)되어야 할 것으로 안다.



(圖版 5) 梨大所藏品(于友를 刻한 部分)

(圖版 5) 이대소장품(梨大所藏品)(간우(干友)를 각(刻)한 부분(部分))

끝으로 이 성석(城石)에서 가장 문제(問題)되는 글자가 첫 행(行)의 연대(年代)를 표시(表示)한 간지(干支)다. 이 간지(干支)는 종래(從來) 이에 관한 모든 문헌(文獻)에서 하나같이 「기축(己丑)」으로 판독(判讀)되어 왔으며 그간 다른 몇몇 글자에 대해서는 시정(是正)이 거듭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행(行)의 간지(干支)에 대해서는 이제껏 일언(一言)의 이의(異義)도 제기(提起)된 일이 없다.
이 성석(城石)은 평양성(平壤城) 성석중(城石中) 두 번째로 발견된 것으로 제일 먼저 발견된 「기축(己丑)」年의 간지(干支) 성석(城石)과는 연대(年代)와 내용(內容)이 비슷한 것으로 설명(說明)되어 왔으며 동일년대(同一年代)의 구축으로 해석(解釋)되어 왔었다.[14)]

그러나 현재(現在) 보관되어 있는 이 성석(城石)의 실물(實物)을 본다면 종전에 「축(丑)」으로 불려왔던 1행(行)의 둘째자를 종전대로 「축(丑)」으로 판독(判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일견(一見) 알 수가 있다.
현재(現在) 이 글자는 상부(上部)가 횡(橫)으로 갈라졌으며 자세히 살피면 글자 중간부분(中間部分)이 마멸되어 각(刻)된 선(線)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글자 식별(識別)이 힘들다. 그리고 좌(左)편이 종선(縱線)으로 파져 내려왔으며 자형(字形)을 본다면 다소 불완전(不完全)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일견(一見) 「유(酉)」자(字)로 보이며 판독(判讀) 또한 「유(酉)」로 해야할 것이다.
종래에는 이 좌(左)편의 종선(縱線)으로 파내려온 부분(部分)을 마멸로 단정하고 십이지

중(十二支中) 가장 흡사한 「축(丑)」자(字)로 해득(解得)한 듯 하다.
그러나 이 종선(縱線)으로 각(刻)된 부분(部分)을 자세히 본다면 마멸되어 파진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게 다듬어져 각(刻)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각(刻)된 글자가 완벽하지 못한 것은 당시 명문중(銘文中)에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우선 본(本) 성석(城石)에서도 「유(酉)」자(字) 앞에 있는 「기(己)」자(字)나 다음에 있는 「年」자(字)도 자획(字劃)이 완전(完全)한 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이 성석(城石)의 기타 각자(刻字)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분야(分野) 전문가(專門家)의 재고(再考)있기를 바랄 뿐이다.
대체로 평양성(平壤城) 성곽(城郭) 축성년한(築城年限) 에 대한 발표된 일부 논문(論文)을 본다면 그간 알려진 간지(干支)의 「기축(己丑)」과 「병무(丙戊)」 년간(年間)의 최소년한(最少年限)인 3년간(年間)에 걸쳐 축성한 것이라고 추정(推定)하고 있다.[15)]

그러나 윤숙(尹塾)이 찬(撰)한 평양속지(平壤續誌)의 평양성(平壤城) 수축년간(修築年間)에 관한 글을 인용하면

「舊城底有石刻 曰本城四十二年畢役 古人之不計功力 而以堅築爲事者 可見矣 俗傳
「구성저유석각 왈본성사십이년필역 고인지불계공력 이이견축위사자 가견의 속전

舊城蒸土築之 今觀居城底者 鑿土非斧斤不入 種樹根拳 而不深入 蒸土之說 恐非虛也」
구성증토축지 금관거성저자 착토비부근불입 종수근권 이불심입 증토지설 공비허야」

이 설(說)에 의하면 「옛성 밑바닥에 돌에 새긴 글자가 있었는데 그 글에 「본성(本城)을 쌓는데 42年 걸려 역사를 마쳤다」 하였으니 옛사람이 공력(功力)을 헤아리지 않고 견고하게 쌓기를 일 삼았음을 알 수 있다. 민간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옛성은 흙을 구어 쌓은 것이라 하였으니 지금 성(城)의 밑바닥을 보면 도끼를 사용하지 않고는 흙을 팔 수 없고 나무를 심어도 뿌리가 말려 깊이 뻗어가지 못하니 흙을 구어 쌓았다는 말이 거짓이 아닌 것 같다」
하였다. 이 글에서 「본성사십이년필역(本城四十二年畢役)」이란 글을 어떻게 해석(解釋)하는냐? 단순히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말인가? 아니면 돌에 새겨 있는 글인가?
그간 일부 평양성관계 논문(論文)에서는 이것은 단순히 민간(民間)에서 전(傳)해오는 말로 해석(解釋)되고 있다.[16)]

그러나 본 글 전체(全體)에서 볼 때 「舊城底有石刻曰本城四十二年畢役(구성저유석각왈본성사십이년필역)」이란 말과 다음에 계속되는 「俗傳 舊城蒸土築之(속전 구성증토축지)...」 등의 글을 대조(對照)한다면 앞에 글을 함께 「속전운운(俗傳云云)...」 해석한다는 것은 글자해석의 모순은 물론이요 지나친 속단이라 할 수 있다.
다시 윤숙(尹塾)의 다음 글을 본다면

「俗傳 築舊城時 多發民丁 連임列立 傳取龍岡鳥石山石云 此地 豈無巖石 而必求諸遠者
(「속전 축구성시 다발민정 연임열립 전취용강조석산석운 차지 기무암석 이필구제원자

其意有在麗太組曰 西京水德調順 我國地脈之根本 然則 古人恐傷地脈 而然歟...」
기의유재려태조왈 서경수덕조순 아국지맥지근본 연즉 고인공상지맥 이연여...」)

라 하여 「민간(民間)에 전(傳)하는 말에 의하면 구성(舊城)을 쌓을 때 민가(民家) 장정을 징발하여 줄을 지어 서서 용강조석산(龍岡鳥石山)에 돌을 날라 쌓은 것이라하니 이곳에 돌이 없어 먼 곳에서 구하여 쌓았겠는가? .... 아마도 지맥(地脈)을 상(傷)할 것을 우려하여 그와 같이 했을 것이다...」
이 글의 내용(內容)에서도 「속전(俗傳)」이란 말을 전제(前提)로 하여 설명(說明)하고 있다. 이들 전후문장(前後文章)의 내용(內容)을 통해서 본다면 축성(築城)에 장구(長久)한 시일(時日)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사십이년필역(四十二年畢役)」을 속전(俗傳)으로 판단(判斷)한다는 것은 신중성 없는 속단이며 찬자(撰者) 자신(自身)이 판별없이 문장(文章)을 기술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실제(實際) 이러한 명문(銘文)의 각자석(刻字石)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現在)까지 알려진 평양성(平壤城) 성석(城石)에 나타난 간지간(干支間)의 년차(年差)를 살펴본다면
병술(丙戌)～기축(己丑)～기유간(己酉間) 24년간(年間)이며
기유(己酉)～병술(丙戌)～기축간(己丑間)이 약(約) 41년간(年間)이 되는 셈이다. 이중 후자(後者)는 윤숙(尹塾)의 기록과 거의 일치(一致)가 되는 년간(年間)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축성년대(築城年代)를 결정(決定)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성석(城石)이 발견된 위치(位置)도 문제되는 것이요 평양성(平壤城) 각자성석(刻字城石)이 다만 이 4종(種)에 불과(不過)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각자성석(刻字城石)은 이외로 더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연대(年代)를 결정(決定)한다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결론(結論)

다만 본고(本稿)에서 언급(言及)하려는 것은 종래 이 각자성석(刻字城石)에 대해 판독(判讀)이 다르고 또 이종(異種)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등 정확(正確)한 개념(槪念)이 파악되지 못하고 더구나 최근(最近)의 평양성(平壤城)에 관(關)한 제논문(諸論文)에서는 명문(銘文)에 대한 기초조사(基礎調査)조차 행해지지 않고 발표되고 있음을 볼 때 차제(此際)에 이에 대한 소견(所見)을 제기(提起)하려는 것이다.
개개(個個)의 문자(文字) 검토는 설사 전체(全體) 내용(內容)에 큰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할지라도 보다 세심한 연구(硏究)가 발표에 앞서 선행(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언(附言)코져 하는 것은 각자(刻字)된 성석(城石)의 명칭(名稱)이다. 그간에 각 문헌(文獻)에서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본다면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에서는 고구려(高句麗) 「고성석각(故城石刻)」
금석총람(金石總攬)에서는 고구려(高句麗) 「성벽석각(城壁石刻)」

이라 부르고 최근(最近)의 발표에는 평양성(平壤城) 「각자성석(刻字城石)」[17]
등 대체로 발표자의 주견(主見)에 따라 명칭(名稱)을 달리하고 있다. 이 성석(城石)은 축성(築城)하는데 사용된 돌의 일종(一種)이다. 다만 석면(石面)에 구축년월일(年月日), 공사구간(工事區間) 감역관(監役官) 등의 이름이 명시(明示) 각자(刻字)되어 있는 것으

로 돌의 크기도 성석(城石)의 크기와 같고 글자수(數)도 20자(字) 내외(內外)로 되어 있다.
이러한 돌의 형태나 사용된 용도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명칭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들 명칭중에 「각자성석(刻字城石)」이란 명칭이 보다 적절한 표현(表現)으로 생각되어 우선 사용하였다. 앞으로 명칭에 대한 연구(硏究)도 아울러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안다.

주(註)

1) 채희국, 정제헌, 考古民俗 1966, 1호 p.32
2) 劉喜海, 海東金石苑 輯錄, 筆寫本
3) 劉喜海 輯錄, 劉承幹 校正, 海東金石苑, 希古樓 刊本
4) 金石總攬, 大正十五年 朝鮮總督府刊本
5) 최희림, 考古民俗 1967, 2호 평양성을 쌓은 연대와 규모.
6) 劉承幹 校正本, 海東金石苑 卷一, 希古樓 刊本
7) 文化財管理局 改訂版, 한국의 문화재, 1972년 8월 p.43
8) 최희림, 考古民俗 1967, 2호 평양성을 쌓은 연대와 규모.
9) 金石總攬, 大正十五年 朝鮮總督府刊本.
최희림, 考古民俗, 1967, 2호 평양성을 쌓은 연대와 규모.
정찬영, 考古民俗, 1966, 2호 평양성에 대하여
10) 최희림, 考古民俗 2호.
11) 劉喜海(燕庭)가 輯錄한 海東金石苑 原輯에는 「五」로 判讀하고 있다.
12) 劉承幹 校正, 海東金石苑, 希古樓 刊本.
13) ……原石舊拓共に京城の人吳世昌氏の舊藏に係り, 高句麗故城石刻と大同小異のものであって惟だ二行目の月日が　　關係して居り五行目に苟と省との相異があるのみである(p.127)
14) 최희림, 考古民俗, 1967년, 2호 p.31.
15) 최희림, 考古民俗, 1967년, 2호 p.35.
16) 최희림, 考古民俗, 1967년, 2호 p.35.
17) 최희림, 考古民俗, 1967년, 2호.